

빅토리아시대 유행복식과 반(反)유행복식 운동에 나타난 여성성과 인체미에 관한 연구 (I)

김 정 선 · 김 민 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대학원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Study on the Femininity and the Ideal Beauty of Body Implied in the Fashion and the Anti-fashion Movement in the Victorian Period (I)

Jeong-Sun Kim · Min-Ja Kim*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Prof.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0. 12. 27 투고)

ABSTRACT

This paper is intended to explore femininity, the ideal beauty of body and the features in fashion pursued in the Fashion system and the Anti-Fashion Movement in the Victorian period, on which the modern fashion is based. For the informative facts needed in this paper, books on history, fashion history, feminism, art history of aestheticism and the ideal beauty of body are referred to. On the part I of this paper, the femininity and the ideal beauty of body implied in the fashion system in the Victorian period will be reviewed.

Following are the conclusion :

First, in the Victorian period, the value of femininity is put on the body of female by the discrimination of sex divided in two. Consequently, the characteristics of femininity mainly include dependence, passiveness, emotion, beauty, maternity, innocence, and purity. To emphasize the function of reproduction as primary duty and nature of female, the ideal beauty of body is represented in the form of Venus Naturalis, which symbolizes the fertility. And the external form of this body is expressed in slim waist line, ample bosom and hip in fashion. Second, the features of this fashion a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by their internal value : images of subordinate female, sensual female and maternal female

※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생활과학 대학 부속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본 연구는 학회지에 I부와 II부로 나누어 게재되며 I부에서는 빅토리아 시대 유행복식에 나타난 여성성, 인체미 및 복식의 미적 특징과 이미지를 II부에서는 반유행복식 운동에 나타난 여성성, 인체미 및 복식의 미적 특징과 이미지를 고찰한다.

- 1) The image of subordinate female is expressed by concealment of legs, tightening the upper part of the body in corset and restriction on action by the crinoline.
- 2) The image of sensual female is revealed in brazing colors and decoration, excessive exposure of the upper part of the body and hip by means of bustle.
- 3) The image of maternity is expressed in swollen skirt of crinoline, oval bustle silhouette metaphoring the extended womb resulted from pregnancy.

Key Words : 여성성(femininity), 인체미(ideal beauty of body), 유행복식(fashion system), 이분법적인 성별체계(dichotomies)

I. 서론

한 사회의 생물학적·사회적 성별체계는 '인간의 성(性)과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사실과 사회의 개입에 의해 형태 지워진 관습적으로 수행되는 일련의 배열'로 구성되며¹⁾ 남성성·여성성(masculinity·femininity)의 범주는 그 내에서 재생산되거나 진복된다. 또한 신체와 문화를 연결하는 표상체계(representation system)의 한 형태로서 복식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남성성·여성성의 범주를 반영한다.

오늘날 현대패션은 성별의 경계가 와해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정체감과 더불어 상이한 가치들이 혼재되어 있다. 더욱이 그것은 여성성의 경계를 끊임없이 구성, 재구성 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여성성을 표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Foucault가 현대성의 시초라고 언급한 빅토리아 시대까지만 해도 복식은 단일한 성별 정체감을 표현하도록 요구받았으며 여성의 복식은 지배적이고 획일적인 유행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다. 이 시기 여성의 유행복식은 신체에 대한 왜곡과 과장을 통해 신체 활동의 구속을 초래하고 여성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그 폐단이 수 없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여성들에게 절대적인 힘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개념의 여성복이 오늘날 현대패션과 같은 형태와 개념으로 변화하기까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며 각기 영향

을 미쳐왔음에 틀림이 없지만 역사의 흐름에 따른 자동적인 변이는 결코 아니었다.²⁾ 오히려 이는 더 나은 미래와 자유로운 삶에 합당한 복식을 추구함으로써 유행복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던 반(反)유행복식 운동(Anti-Fashion Movement)의 반세기에 걸친 의식적인 투쟁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빅토리아 시대의 반유행복식 운동은 미적 예술적 접근으로서 유미(唯美)주의 복식(Aesthetic Dress) 운동과 사회적 이념적 접근으로서 이성주의 복식(Rational Dress)운동의 두 흐름으로 전개되었다. 이 운동의 참여자들은 유행복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발전시킬 복식에 대한 기준과 변화를 주장하는 이유를 이즘이나 신념의 실체와 결합시킴으로서 여성성에 대한 새로운 가치평가를 시도하였다.

최근 복식사 분야에서는 다수보다는 소수, 주류보다는 비주류, 지배문화보다는 하위문화에 관심을 갖는 경향에 힘입어 반유행복식은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패션의 근저를 이루는 빅토리아 시대 유행복식과 반유행복식 운동에 나타난 여성성과 인체미 및 복식의 미적 특징과 미적 이미지³⁾를 밝히고 이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현대복식이 추구하고 있는 여성성과 이에 따른 여성 신체에 대한 이상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깊이 있는 사회, 문화사적인 접근을 위하여 분석의 틀에 성별성(gender)의 개념을 도입하고자한다.

여성성과 인체미 및 복식양식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상적인 인체미나 복식미에 대한 사회, 문화

사적인 이해를 제공함과 동시에 문화체계(cultural system)의 일부로서 복식의 개념을 이해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 서적, 복식사 서적, 페미니즘 서적, 유행주의에 대한 미술사 서적, 인체미 관계 서적, 학술지등 관련 자료를 통해 사적 문헌적 연구를 행하였으며 도판자료를 참조하였다.

II. 빅토리아 시대 유행복식에 나타난 여성성과 인체미

1.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성에 영향을 미친 사회 문화적 요인

빅토리아 시대⁴⁾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근간으로 하는 모더니티⁵⁾의 성립으로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가 확립, 발전하게 되는 시기인데 막강한 경제력을 토대로 사회권력을 쥐게된 부르조아 계급은 모든 문화적 가치를 관장하는 사회의 주도적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부르조아 계급의 문화는 자본주의의 요구를 조직적으로 관철하려는 방향으로 형성됨으로서 모든 방면에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것을 추구했다. 인간과 인간의 모든 관계가 새롭게 통제되었고 모든 것이 의지와 두뇌의 냉정한 확신에 의해 지배, 조절되었으며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행해졌다.⁶⁾ 경쟁, 효율, 체통, 목적의식이 소중히 여겨졌으며 성취나 돈, 성공이 존중되었다.

이 시기에 일어난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변화라는 생산양식의 변화는 가족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19세기 이전의 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정을 중심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생산에 참여하였다. 이에 비해 19세기 자본주의적 가족은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주된 기관으로 정착함으로써 '경제로부터 분리된 사적인 영역'으로 새롭게 개념화되었다.⁷⁾ 이제 가족은 생산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개인들 사이의 낭만적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가혹한 세상의 은신처로 여겨졌고 가족의 불가침성은 사회의 지배적인 관념으

로 강조되었다. 성적 욕망이 합법적인 이성애의 부부사이에 한정됨으로서 가족의 도덕적 이상이 옹호되었다.

가정중심성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가족임금제의 정착으로 남성에게는 공적인 영역에 나아가 경제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임금을 받는 한가족의 가장이라는 여성에게는 가정이라는 사적인 영역에서 아내와 어머니라는 성역할이 강조되었으며 양성의 차이에 따른 성별분업이 새롭게 확립되었다.

이러한 공·사영역의 분리는 계몽주의의 사고와 결합되었다. 원래 계몽주의의 세계관은 이분법적인 것으로 한편으로는 이성애에 의해 지배되는 물질적 세계와 다른 한편으로는 감성적이고 개인적이고 부차적인 문제들이 모여 있는 주변세계 사이에 근본적인 분리를 설정하고 이성적인 세계가 비이성적인 세계보다 우월하다는 가정을 내포하는 것이었다.⁸⁾ 결국 빅토리아 시대 산업혁명으로 인한 공·사영역의 분리는 계몽주의의 이분법적인 세계관과 결합하여 이성을 남성의 공적인 영역과 동일시하고 비이성적인 것들을 사적인 영역 및 여성의 영역과 동일시하는 이분법적인 성별체계의 형성을 보게된다.

2. 빅토리아시대의 이분법(二分法)적인 생물학적 사회적 성별체계와 여성성

<도표 1>은 Jodanova가 제시한 18·19세기 과학과 의학에 나타난 이분법적인 성별체계⁹⁾를 보여주는데 남성·여성, 이성·감정, 문화·자연, 의식·무의식이라는 이분법은 중심에 놓인 남성, 이성, 문화, 의식이 자신의 진리임을 내세워 다른 한쪽을 억압내지 침묵시키는 불평등한 위계구조¹⁰⁾를 지니고 있었다. 이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발전의 논리에 부합되는 것으로 빅토리아 시대 산업혁명과 과학혁명을 배경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던 산업주의는 자연을 극복하고 문화적으로 획득한 이성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여성의 속성으로 간주되는 비이성적인 전통을 배제할 필요가 있었다.

<도표 1> 18·19세기 과학과 의학에 나타난 이분법적인 성별체계

전통적(Traditional)	현대적(Modern)
여성(Woman) 자연(Nature) 육체적(Physical) 어머니로서의 돌보기(Mothering) 감정과 미신(Feeling & Superstition) 시골(Country) 어둠(Darkness) 자연(Nature)	남성(Man) 문화(Culture) 정신적(Mental) 생각하기(Thinking) 추상적 지식과 사고 (Abstract knowledge & thought) 도시(City) 빛(Light) 과학과 문명(Science & Civilization)

남성의 본성은 신체가 아닌 그들의 '이성'에 주어졌으며 남성은 이성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자율적인 주체로 활동하기 위해 이에 적합한 성별 정체감을 획득해야 했다. 소년들은 남성적인 특질과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여성적인 정체감과 여성적인 느낌들 예를 들어 의존감, 관계에 대한 필요성, 감정 등을 부정하도록 요구받았다.¹¹⁾ 결과적으로 자율적이고 강하고 '지배하는 남성성'¹²⁾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강화된다. 빅토리아 시대 남성성은 교훈적인 사회규범으로서 절대주의 시대 유희로서의 남성성에 반하는 금욕으로서의 남성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여성성은 이에 대한 반응으로 형성된 것으로 감정, 부드러움, 민감함, 따뜻함, 부끄러움, 순결함, 연약함, 정숙성, 수동성, 종속성은 여성성을 특징짓는 범주가 되었다. 이분법적인 성별체계에 의해 여성은 문화보다는 자연에 더 가까운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여성의 생식체계와 출산이 여성성의 본질로 간주되었고 여성은 육체적으로 출산하게 되어있을 뿐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가족중심성과 더불어 여성의 중요한 천직이자 일차적인 정체감으로서의 모성 개념이 여성성에 대한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일부분으로 강화되었다.

이제 '여성성'은 정치,경제의 남성적인 영역과는 완전히 분리된 심리적 정서적 관능적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여성은 도덕적이고 미적이라는 문화적 요구를 감당하게 된다. 무목적적이고 아름다운 중류계급의 여성은 노동에 참여하지 않고 장식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부르주아의 문화적 가치를 관장하게

되었다.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은 오직 여성성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졌고 여성은 자신의 외모를 가꾸도록 권고 받았다. 그들은 '아름다워지는 것이 사회에 대한 여성의 첫번째 의무'임을 확신했다.¹³⁾ 실제적인 관점에서 볼때 사회진출의 통로가 극히 제한되어져 있고 가사와 육아라는 부불노동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여성의 목표가 결혼인 이상 여성이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빅토리아 시대 이상적인 인체미

빅토리아 시대 여성 신체에 대한 이상미는 여성의 일차적인 의무이자 여성성의 본질로 간주되던 '생산 역할'과 '모성성'을 뚜렷이 반영하는 것이었다. 여성 인체미의 표준을 탐구했던 A. Walker는 여성의 미를 동적인 미(Locomotive Beauty), 이지적인 미(Thinking Beauty), 풍만한 미(Vital and Nutritive Beauty) 세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풍만한 미를 가장 우수한 미의 형태로 옹호하였다.

“가슴을 비롯하여 풍만한 신체는 미적으로 아름다울 뿐 아니라 야윈 신체에 비해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여성의 진정한 역할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엉덩이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의 중요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커야하는 반면에 허리는 가늘어야 한다. 즉, 여성의 전체적인 몸매는 부드럽고 극히 관능적이어야 한다.”¹⁴⁾

여성의 생식적인 생명을 상징하는 이차 성징부위인 가슴과 엉덩이는 풍만하고 성교를 암시하는 허리는 높고 가는형이었으며 이는 어떤 의미에서 자연적인 여성 신체에 대한 과장된 표현의 형태였다고 할 수 있겠다. 당시 회화나 사진<그림 1>에서 보여지는 풍만하고 살찐 뒷모습, 코르셋에 의해 조형된 가는 상체와 가냘픈 허리 그리고 크리놀린과 버슬에 의해 만들어진 돌출된 엉덩이의 조합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요컨대, 빅토리아 시대 자연·문화라는 이중구조 내에서 여성은 자연에 속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여성의 이상적인 인체미는 여성의 생식기능을 강조하는 즉, 가는 허리와 큰 가슴과 넓은 골반을 강조하고 전적으로 관능적인 풍만함을 지니는 '식물의 비너스'¹⁵⁾(Venus Naturalis)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의 번식력을 상징하는 이러한 인체미는 빅토리아 시대 여성의 복식미에 명확히 반영된다.



<그림 1> 유행복식에 나타난 이상적인 인체미: 식물의 비너스 (Philippe Perrot, Fashioning Bourgeoisie, p.157)

Ⅲ. 빅토리아 시대 유행복식의 미적 특징 및 미적 이미지

1. 빅토리아 시대의 유행복식의 미적 특징

빅토리아 시대의 남성복과 여성복은 이분법적인

성별체계를 뚜렷이 반영하는 것으로 역사의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양성의 의복차이가 극대화되었다. '지배하는 남성성'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19세기 중반에는 상류·중류계급뿐 아니라 도시의 노동자 계급의 남성들까지도 남성들은 어두운 색상에 수수하고 기능적인 테일러드 수트(tailored suit)를 착용하게 되었다. Anne Hollander는 테일러드 수트가 넓은 어깨와 근육이 잘 발달된 가슴으로부터 점차 가늘어져 날씬한 배와 가는 허리에 긴다리를 가지는 남성의 이상적 인체미를 나타내도록 재단됨으로서 고대 조각상에 새겨진 영웅의 완벽한 신체를 의복으로 표현한 추상적인 조각의 형태였다고 설명한다.¹⁶⁾ 즉, 테일러드 수트는 남성성이 그토록 찬양에 맞이하던 '이성'을 통해 신체의 모든 기본 구성요소를 해부, 재구성한 형태로서 브르조아 남성생활의 기본원리인 성실성, 유능함, 단정함, 자제력, 극기를 주장하는 동시에 남성의 사회적 정당성과 이데올로기적인 변호를 구축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후 고찰하게 될 이성주의 복식운동에서도 남성의 수트를 그 지향점으로 추구한다.

남성복과 여성복의 중요한 차이점은 이처럼 남성의 테일러드 수트가 실제적인 해부학적 근거를 토대로 형성되었고 새로운 대도시 생활에 적응한 스타일이었던데 반해, 여성복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절대주의 시대의 스타일을 여전히 고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빅토리아 시대 여성의 복식은 그 시대의 맥락 안에서 독특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여성은 결혼을 통해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유행'이라는 획일화된 복식을 착용해야 했으며 반면에 그녀 자신만의 독특함을 표현해야 했다. 유사성 속에서 이러한 독특함의 필요성은 결혼시장에서 부각되었다. 사회적 신분의 이동이 가능한 사회를 확립하고자 했던 브르조아 계급은 자유연애 결혼을 옹호했는데 복식은 사회이동의 한 양상이었으며 구애의식이었고 특히, 결혼만이 경제적인 안정을 획득할 수 있었던 브르조아 계급의 여성에게 매우 중요하였다. 빅토리아 시대 결혼시장에서 여성의 복식은 유희적인 여성성을 표현해야 할 뿐 아니라 가족의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야 했다. 명백한 순종과 더불어 가사를

경영할 능력이 암시되어야 했으며 다산을 할 수 있는 건강이 결합되어야 했다.¹⁷⁾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복은 낭만주의 스타일(Romantic Style : 1828-48)에서 출발하여 크리놀린 스타일(Crinoline Style : 1840-68)을 거쳐 버슬 스타일(Bustle Style : 1868-1890)과 아르누보 스타일(Art Nouveau Style : 1890-1910)까지를 포괄한다. 본 연구에서는 반유행복식 운동이 등장하게 된 동기이자 그 배경이 되었던 코르셋과 크리놀린, 버슬 스타일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코르셋(corset)

반유행복식 운동의 일차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코르셋은 빅토리아 시대 유행복식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였으며 그 작은 사이즈는 그 시대 여성들의 가는 허리에 대한 열망을 보여 준다.

코르셋은 그것이 불러일으킨 논쟁만큼이나 모순된 많은 상징적 가치를 지닌다. 우선 코르셋은 여성의 도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코르셋은 여성의 정숙성의 필수적인 요소로 이를 착용한 여성은 홀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코르셋을 착용하지 않고 외출하는 것은 옷을 입지 않는 것과 같이 부도덕하며 몸가짐이 바르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브르조아 계급의 미의 기준에 적합한 유혹적인 여성성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의 성적인 매력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교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¹⁸⁾

코르셋의 다른 모순은 그것이 종속적인 여성성에 대한 단언이자 동시에 여성성에 대한 부정이었다는 것에 있다. 이를 착용한 여성은 노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코르셋은 유한계급의 상징이었으며 여성의 건강을 쇠약하게 하고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금지함으로써 남성성에 대한 복종과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최근 Mel Davies는 코르셋이 성교를 고통스럽게 하는 경부의 상해를 유발하고 복부에 가해지는 압력으로 인한 생리불순을 초래함으로써 브르조아 계급 여성의 생식능력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한다.¹⁹⁾ 코르셋이 여성의 성욕을 통제하고 감소시킴으로써 복종적인 여성성을 유지시키는 도구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역설적인 복종이었다. 현대적인 시각에서 Caroline Evans는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 사이에서 널리 확산되었던 코르셋이 모성을 여성의 일차적인 정체감으로 규정했던 시기에 반모성적인 의미에 기여했다고 설명한다.²⁰⁾ 즉 코르셋은 출산에 구애받지 않고 강요받지 않는 성(性),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성을 의미하는 해방의상이었다는 것이다. 예술사학자인 David Kunzel도 이와 유사한 관점을 제시한다. 그는 빅토리아 시대 코르셋을 착용한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의무지워진 가사와 육아를 거부하는 성적으로 독단적인 여성들이었다고 주장한다.²¹⁾

코르셋의 이러한 많은 모순은 빅토리아 시대 이분법적인 성별체계에 의해 규정된 여성성의 이중적인 속성에 기인한다. 이 시대 여성은 장식적인 존재인 동시에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로 간주되었고 남편을 매혹시키고 즐겁게 해야 하는 동시에 순결해야 했다. 이러한 양면성은 관능적인 에로티시즘과 금욕적인 정숙성 사이의 미해결된 긴장²²⁾이라는 빅토리아 시대 여성복의 중요한 특징을 낳았으며 코르셋은 이러한 모순을 극명하게 반영한다. 코르셋은 의학자들을 비롯하여 도덕주의자, 예술가, 페미니스트들의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반유행복식운동의 참여자들은 심미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측면에서 코르셋에 비판을 가하였으며 코르셋의 폐기는 이 운동의 일차적인 목표로 이는 곧 여성해방의 상징이었다.

(2) 크리놀린과 버슬 스타일

드롭 쇼울더(dropped shoulder), 레그오브 모튼 슬리브(leg of mutton sleeve)나 커다란 에폴레트(epaulette)를 특징으로 하던 낭만주의 스타일은 1850년대 크고 화려하고 세속적인 실루엣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50년대 들어서면서 낭만주의 스타일은 과장되었던 상체가 점차 작아져 상체와 허리는 더욱 조여지는 대신에 스커트만을 한없이 부풀린 크리놀린 스타일이 지배하게 된다. 더욱이 이는 높은 허리선을 강조함으로써 의복의 흥미의 초점을 더욱 스커트의 부피에 집중시키는 형태였다.(그림 2)



<그림 2> 빅토리아 시대 유행복식 : 크리놀린
J. Anderson Black & M. Garland, A History of Fashion
(London : Orbis Publishing Ltd, 1980) p.195

크리놀린(crinoline)은 크랑(crin:말 꼬리털)을 섞어서 짠 단단한 목면 또는 랑(lin:리넨)을 가리키며 crin과 lin의 합성어이다. 1830·40년대 스커트를 버티는 동시에 부풀릴 목적으로 페티코트(peppicoat)나 언더 스커트(under skirt)가 사용되었는데 크리놀린은 그것을 버티기 위한 섬유재료이던 것이 그대로 스커트의 스타일을 일컫는 명칭으로 사용되게 된다. 또 영국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강철대신 고무 테(hoop)를 끼워 만든 것이 발명되었고 후에 미국에서는 여러 개의 철사 테를 리본으로 엮어 만들어 아래위로 수축이 가능한 형태가 고안되기도 했다. 크리놀린은 여러 벌의 페티코트를 겹쳐 입는 것보다 훨씬 가볍고 허리에 여러 개의 벨트가 겹치지 않아 허리를 가늘어 보이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급속히 확산되었다.²³⁾

스커트를 부풀리게 하는 구조로서 강철의 테가 도입된 것은 제1회 국제박람회(1851년 런던)의 심볼이었던 유리로 제작된 수정궁의 철골 틀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라고 한다. '섬유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축물'이라고 언급되었던 크리놀린은 무거운 스커트로 인한 비실용성과 막대한 의상비 신체에 대한 구속성으로 인해 사회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당대 많은 비평가들의 비난을 받았을 뿐 아니라 「펀치」(Punch)의 신랄한 풍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²⁴⁾

크리놀린은 50년대에 그 크기에 있어 절정에 달하게 되는데 60년대 이후에는 그 형태가 앞이 평평해지면서 뒤가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후 크리놀린은 오버 스커트(over skirt)가 커튼처럼 드리워지는 폴로네이즈 스타일(polonaise style)을 거쳐 68년경에는 그 자취가 소멸되고 1870년대에는 새로운 버슬 스타일(bustle style)로 대체되었다. 버슬 스타일은 bustle이라는 패드를 넣어 엉덩이가 뒤로 돌출하게 함으로서 곡선진 실루엣을 만들어주는 치마 버팀대에 의해 둔부를 강조하는 독특한 의복 스타일을 말한다. 이처럼 뒤만 곡선진 실루엣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종류의 버팀대가 사용되었는데 하나는 버슬패드를 만들어 속치마의 엉덩이 부분에만 달아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일한 모양의 금속제 틀로 치마 버팀대를 만들어서 속치마 위에 입는 것이다.²⁵⁾ 버슬 스타일은 앞에서 볼 때는 스커트가 다리에 일자형으로 밀착되는 형을 이룬 반면 뒷모습은 리본, 프릴 등의 장식에 의해 돌출된 둔부가 더욱 강조되었다.<그림 3>



<그림 3> 빅토리아 시대 유행복식 : 버슬 스타일 Millais작,
[Mrs. Bischoffsheim, 1873] J. Treuherz, Victorian Painting,
(London: Thames and Hudson, 1993), p.163

버슬 실루엣의 변화를 살펴보면, 1870년대 초기에 치마의 뒷부분이 점차 단쪽으로 넓고 길게 발전하다가 중반경에는 그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70년대말과 80년대 초에는 한결 간편하고 날씬한 형을 이루게 된다. 즉 70년대 중반부터 스커트의 풍성함이 아래쪽으로 하향진행하면서 긴 트레인(train)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시기 버슬의 프린세스 드레스(princess dress)는 허리에 봉재선이 없이 수직으로 긴 라인을 강조하였다. 복식사학자들은

70년대말~80년대초 이러한 프린세스 라인이 유행 복식과 유미주의 복식이 일시적인 결합을 이룬 시기라고 해석한다.²⁶⁾ 그러나 1880년대 중반부를 향해 가면서 다시 버슬이 부활되기 시작해서 말엽에는 허리에서 거의 직각 형태로 버슬의 상부가 돌출되어 둔부를 강조한 형을 이루게 된다. 크리놀린이 스커트의 거대한 크기로 인해 비난받았다고 한다면 버슬은 허벅지의 윤곽선을 드러내고 엉덩이에 흥미를 집중시킨다는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2. 유행복식의 미적 이미지

유행복식의 미적 이미지는 복식양식의 내적 의미라는 측면에서 종속적 여성이미지, 관능적 여성이미지, 모성적 여성이미지 세 범주로 구성된다.

(1) 종속적 여성 이미지

여성성은 복식에 있어서 구속과 해방, 은폐와 노출로 표현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크리놀린과 버슬은 그것이 정적이고 부동적이라는 측면에서 '수동성'과 '종속성'이라는 빅토리아 시대 여성성의 핵심적인 범주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흔히 복식에 있어서 상체의 노출은 감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하체의 노출은 활동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크리놀린과 버슬은 여성의 섬세한 신체부위인 목선과 어깨, 가슴 등의 상체는 과도하게 노출시켰던 것에 반해 다리는 완전히 은폐시켰다. 빅토리아 시대의 정숙성의 기준은 여성의 다리를 완벽하게 은폐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여성들의 성적인 과시는 상체에 집중되었다. 이는 본질적으로 자신이 보는 위치라기 보다는 '보여지는 위치'라는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능동성보다는 수동성을 상징한다. 즉 코르셋에 의한 압박과 다리의 활동성을 제거한 크리놀린과 버슬의 구조는 본질적으로 충성과 복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크리놀린을 착용한 여성은 두드러지게 가시적이었고 동시에 상징적으로 신체의 움직임이 구속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적 부동성은 역설적으로 버팀대인 크리놀린에 의해 주어지는 다리의 자유를 동반했는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풍성한 스커트의 외관을 유지

하기 위해 이전까지 착용했던 여러 겹의 거대한 페티코트를 대신한 것이었다.

(2) 관능적 여성 이미지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문화적 요구는 관능적인 에로티시즘이라는 빅토리아 시대 여성복의 중요한 특징을 낳았다. Valerie Steele은 이 시기 여성복이 극도의 정숙성을 가장한 유혹의 수단이었음을 제안한다. 그녀는 빅토리아 시대 여성복의 초기 스타일은 정숙성을 강조한 반면, 크리놀린 이후에는 표면상으로는 극도로 정숙하고 은폐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단상의 성적과시를 통해 여체의 성적인 특징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형태였다고 설명하면서 빅토리아 시대 여성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에로티시즘임을 강조한다.²⁷⁾

크리놀린은 여성의 예의바름을 대변하는 복식이었지만 넓은 스커트 폭으로 인해 걸을때나 입구를 통과할때 계단을 오르거나 춤을 출때 반드시 이를 걸어들여야 했으며 이때마다 여성의 가장 비밀스런 신체부위로 여겨졌던 다리가 노출되었다.

더욱이 버슬은 본질적으로 여성의 다리를 은유적으로 암시하는 디자인이었다. 그것은 여성의 다리를 완벽히 은폐하고는 있지만 허벅지를 더욱 육감적으로 표현하고 실제보다 더욱 풍만하게 보이게 함으로서 유혹적인 여성성을 표현하였다.

빅토리아 시대 유행복식에 표현된 이러한 관능적 여성 이미지는 주목할만한 가치를 지닌다. 이는 이 시기 여성들이 사회, 문화적인 요구에 의한 제약된 삶속에서도 '관능성'이라는 인간의 본연적인 욕망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많은 역사학자들은 1860년대 이후 유행복식의 더욱 대담해진 효과가 여성들의 사회적, 정치적 해방을 향한 미성숙한 노력과 관련을 지닌다고 주장한다.²⁸⁾ 따라서 유행복식에 표현된 관능적 여성 이미지는 종속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강요받았던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의 미약하나마 성장하는 자주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관능적 여성 이미지는 이후 고찰할 유미주의 복식과 관련을 지닌다. 반유행복식의 한 형태로서 유미주의 복식은 유행복식에 비해 훨씬 자유롭고 대담하며 개성적인 방식으로 관

능적 여성 이미지를 표현한다.


(3) 모성적 여성 이미지

크리놀린은 본래 1856년 우제니 황후와 같은해 임신중이었던 빅토리아 여왕이 임신상태의 몸매를 감추기 위해 채택하였다고 하는데 코르셋과 크리놀린의 조합은 여성의 풍만한 가슴과 가는 허리와 더불어 커다란 골반을 강조하는 형태로서 여성미를 극도로 강조한 X실루엣을 이룬다. 여성의 생산능력을 여성의 천부적인 가치로 규정하던 빅토리아 시대의 문화적 전통내에서 크리놀린의 높은 허리선과 거대한 스커트는 어머니의 출산능력을 은유적으로 암시한다는 면에서 모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크리놀린이 넓은 스커트의 형태로 여성의 생산기능을 표현했다고 한다면 버슬은 둔부의 강조를 통해 생식능력이라는 여성의 일차적인 사회적 역할을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Bonnie Smith는 19세기

브르조아 여성의 복식에 관한 연구에서 유사한 견해를 제안한다. 그녀는 임신시 여성의 가슴과 배가 구형을 이루는 형태를 여체의 본질적인 생식의 원형(reproductive contours)으로 보고 1870, 80년대 하이 웨이스트의 버슬 스타일은 그러한 구형이 뒤로 물러난 형태였다고 설명한다.²⁹⁾ 즉, 버슬 스타일은 모성에 대한 숭배로 인해 자궁의 완전성을 숭배하던 빅토리아 시대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수태시 신장된 자궁을 은유적으로 수용한 디자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때 모성이 여성의 가장 지고한 역할로 강조되고 여성미의 기준이 여성의 생산역할에 의해 규정되었던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복식 크리놀린과 버슬은 여성의 모성성이라는 이미지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빅토리아 시대 유행복식에 있어서 여성성과 인체미, 복식의 미적 특징 및 이미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문화적 요인	객 관 적 미 의 식		주관적 미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화와 도시화를 근간으로 하는 모더니티의 성립 • 브르조아 계급의 성립 • 공·사영역의 분리와 가정중심성 이데올로기 	유행복식의 양식		인체미 '식물의 비너스' 	미적 범주 (여성성)	
	외적 형식	내적 의미			종속성 수동성 정속성 순결성 섬세함 부드러움 연약함 복종과 충성 관능성 모성성 가정중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도의 무거움 • 하체, 다리의 은폐 • 코르셋에 의한 상체의 압박 • 크리놀린의 상징적인 부동성 	종속적 여성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려한 색상과 장식성 • 데칼마주에 의한 상체의 과도한 노출 • 재단상의 성적과시 • 버슬에 의한 허벅지의 노출과 둔부의 강조 • 가는 허리에 대한 강조 	관능적 여성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리놀린의 거대한 스커트 • 수태시 신장된 자궁을 은유하는 구형의 버슬 실루엣 	모성적 여성이미지	여성의 일차적인 의무감으로서의 재생산 기능을 강조하는 인체미로 가는 허리와 큰 가슴, 넓은 골반등 여성의 이차성징 부위를 강조하고 전체적으로 풍만함을 지닌다.			

<도표 2> 빅토리아 시대 유행복식에 있어서 여성성과 인체미, 복식의 미적 특징 및 이미지

IV. 결 론

남성성·여성성의 범주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며 인체미와 복식미에 뚜렷이 반영된다. 현대 패션은 남성성·여성성의 범주를 반영할 뿐 아니라 그 경계를 끊임없이 구성, 재구성함으로써 개인의 다양한 정체감을 표현하는 실험의 장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대적 의미에서의 복식의 근원을 이룬 빅토리아 시대 유행복식과 반유행복식 운동에 나타난 여성성과 인체미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 I에서는 이 시기 보편적인 이분법적인 성별체계에 의해 규정된 여성성의 개념 및 그 범주를 고찰하고 이를 근거로 유행복식에 나타난 인체미와 복식의 미적 특징과 미적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고찰한바와 같이 빅토리아 시대는 이분법적인 성별체계에 의해 내재적인 남성성, 여성성에 기초한 단일한 성별 정체성이 우세했던 시기로 여성은 종속적인 동시에 모성적이고 미적이라는 문화적 요구를 감당하게 되었으며 유행체계 내에서 여성의 인체미와 복식미는 이에 근거하여 규정되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빅토리아 시대 이분법적인 성별체계에 의해 규정된 여성성 및 여성신체에 대한 이상미는 다음과 같다. 여성성의 본질은 여성의 육체에 주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종속성, 수동성, 감성, 아름다움, 모성성, 가정중심성, 순결함, 정숙성 등이 여성성의 핵심범주를 구성하였다. 여성의 일차적인 의무이자 여성성의 본질로서 생산(reproduction)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유행복식의 이상적인 인체미는 가는 허리와 큰 가슴, 넓은 골반 등 여성의 이차성징 부위를 강조하고 전체적으로 풍만함을 지니는 즉, 번식력을 상징하는 '식물의 비너스'의 형태로 나타났다.

둘째, 유행복식의 미적 특징은 복식양식의 내적 의미라는 측면에서 종속적 여성 이미지, 관능적 여성 이미지, 모성적 여성 이미지의 세 범주로 구성되며 그에 따른 복식양식의 외적형식은 다음과 같다.

1) 종속적 여성 이미지는 극도의 무거움, 하체 즉 다리의 은폐, 코르셋에 의한 상체의 압박, 크리놀린의 상징적인 부동성등으로 표현된다.

2) 관능적 여성 이미지는 화려한 색상과 장식성, 데콜타주에 의한 상체의 과도한 노출, 재단상의 성적 과시, 버슬에 의한 허벅지의 노출과 둔부의 강조로 표현된다.

3) 모성적 여성 이미지는 크리놀린의 거대한 스커트, 수태시 신장된 자궁을 은유하는 구형의 버슬 실루엣으로 표현된다.

참고문헌

- 1) Barrie Thorne & Marilyn Yalom, 『Rethinking the Family : Some Feminist Questions』 (1982), 권오주 외 역,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가족』 (서울 : 한울아카데미, 1995), p.17.
- 2) 이주연, 『라파엘 전파 회화에 표현된 복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p.1.
- 3) Wofflin은 미적 대상의 표현방식인 양식은 외적 형식과 내적 의미가 이중근원을 이루며 형식과 의미는 불과분의 관계를 지닌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복식의 미적 특징은 복식의 조형적 측면인 외적 형식을 복식의 미적 이미지는 복식의 표현적 측면인 내적 의미로 의미한다.
- 4) 빅토리아 시대란 영국 여왕 빅토리아(Victoria)의 재위 기간이었던 1837년에서 1901년에 이르는 19세기의 약 64년간의 시기를 말한다.
- 5) 모더니티와 모더니즘, 모더니제이션이라는 용어는 구분되어야 하는데 모더니티라는 용어는 사회적 삶의 독특한 형태로서 근대사회의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근대사회는 16세기경부터 출현하기 시작하였지만 모더니티 자체는 18세기 계몽주의 철학 속에서 그 이념적 내용을 갖추게 되며 19세기에 이르르면 산업혁명을 토대로 하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동들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모더니티란 19세기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현상의 복합체를 의미하게 된다. 반면에 모더니즘은 19세기 말엽과 20세기 서구 예술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예술운동이나 경향을 지칭하는 용어이며, 모더니제이션이란 사회, 경제적 개념인 용어로 사회와 경제분야에서 모더니티가 실행되는 과정을 지칭한다. (김옥동,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서울 : 현암사, 1992), pp.13-33, 김성기 외,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서울 : 민음사, 1994), pp.19-28, 참조)
- 6) Eduard Fuchs, 『Illustrierte Sittengeschichte vom Mittelalter bis zur Gegenwart』 (München : Albert Langen, 1909), 이기웅·박종만 역, 『풍속의 역사 IV』, pp.3~4.

- 7) Lindsey German, 「Sex, Class and Socialism」, 장경선 역, 「여성해방의 정치학」, (서울 : 여성사, 1994), pp.28~30.
- 8) Josephine Donovan, 「Feminist Theory : The Intellectual Traditions of American Feminism」 김익두·이월영 역, 「페미니즘 이론」, (문예출판사, 1994), pp.14~17.
- 9) L. J. Jordanova, "Natural Facts : A Historical Perspectives on Science and Sexuality", 「Nature, Culture and Gender」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quoted in C. V. Scott 「Gender and Development」 (London : Lynne Rienner Publishers, Inc. 1995), pp.27~28.
- 10) Simone de Beauvoir는 이를 '주체로서의 남성과 타자로서의 여성'이라고 언급하였다.
- 11) Nancy Chodorow, 「Feminism and Psychoanalytic Theory」 (Connecticut : Yale University Press, 1989), pp.109~110.
- 12) 사회학자인 R. W. Connell에 의해 발전된 개념으로 이는 사회에서 남성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남성스러운 표현들을 의미한다.
- 13) Valerie. Steele, 「Fashion and Eroticism, Ideals of Feminine Beauty from the Victorian Era to the Jazz Age」, (N. Y. :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p.102.
- 14) Alexander Walker, 「Beauty : Illustrated Chiefly by an Analysis and Classification of Beauty in Women」 (London : E. Wilson, 1836) pp.209~226, quoted in V. Steele, op. cit., pp.103~104.
- 15) 본 연구에서는 빅토리아 시대 유행복식과 반유행복식 운동에서 추구한 이상적인 여성 인체미의 범주를 '식물의 비너스'(Venus Naturalis), '천상의 비너스'(Venus Coelestis), '중성의 비너스'의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 앞의 두 범주는 미술사가인 K. Clark의 인체미에 대한 분류를 따른 것으로 '식물의 비너스'는 여성의 이차성징 부위인 가슴과 엉덩이를 강조하고 전체적으로 풍만함을 지니는 여성의 변식력을 강조하는 인체미이다. 반면에 '천상의 비너스'는 가슴 이상의 형이상학적인 신체 부위를 강조하고 전체적으로 단단하고 잘 억제된 정신적인 이데아를 상징하는 인체미이다. 한편 '중성의 비너스'란 여성의 신체를 미발육 상태로 표현함으로써 모성적인 이미지를 배제한 즉, 중성(中性)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마르고 미성숙한 인체미를 의미한다.
- 16) Anne Hollander, 「Sex and Suit」 (N. Y. : Alfred A. Knope : 1994), pp 84~85.
- 17) Elizabeth Wilson, 「Adorned in Dreams : Fashion and Modernity」 (London : Virago Press, 1985), pp.122~123.
- 18) V. Steel, op. cit., pp.174-175
- 19) M. Davies, "Corsets and Conception : Fashion and Demographic Trends in 19th Century", 「Compe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1982), pp.611~641 quoted in Bryan S. Turner, 「The Body and Society : Exploration in Social Theory」, (N. Y. : Basil Blackwell Publisher Ltd, 1984), pp.197~198.
- 20) Caroline Evans, 「Women & Fashion」 (London & N. Y. : Caroline Evan and Minna Thornton, 1989), p.2.
- 21) V. Steele, op. cit., p.161.
- 22) V Steele, op. cit., p.86
- 23) 정홍숙, 「근대 복식문화사」 (서울 : 교문사, 1993), p.128.
- 24) 이주연, op. cit., p.16.
- 25) 정홍숙, op. cit., p.131.
- 26) V. Steele 이나 Stella Mary Newton 과 같은 복식사 학자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 27) V. Steele, op. cit., p.87.
- 28) W. L. Burn, 「The Age of Equipose. A Study of The Mid-Victorian Generation」 (London:George Allen & Uniwin, 1964), p.26, quoted in V. Steele, op. cit., p.130.
- 29) Bonnie G. Smith, 「Ladies of the Leisure Class. The Bourgeoises of Northern France in the Nineteenth Century」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p.78 quoted in V. Steele, op. cit., p.95.
- 류기주, "신체에 대한 미의식에 따른 복식형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서지문, "19세기 영국 여성 작가들의 자전적 소설", 「또 하나의 문화」 (서울:또 하나의 문화 제9호, 1992)
- 이민선,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에 관한 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 Babara Burman Baines, 「Fashion Revivals from Elizabethan Age to the Present Day」 (N.Y.: Drama Book Publishers, 1981)
- Susan R Bordo, 「Gender/Body/Knowledge : Feminist Reconstructions of Being and Knowing」 (New Brunswick &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1989)
- _____, 「Unbearable Weight : Feminism, Western Culture and the Body」 (Berkeley & L.A. &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 Kenneth Clark, 「The Nude」, 이재호 역, 「누드의 미술사」 (서울:열화당, 1982)
- Ducan Crow, 「The Victorian Woman」 (London : George Allen & Uniwin Ltd, 1971)
- Michel Foucault, 「Histoire de la Sexualite I : La Volonte de Savoir」, (1976), 이규현 역 (서울: 나남, 1990)
- Rosemary Jann, "Darwin and Anthropologists : Sexual Selection and Its Discontents", Journal of Victorian Studies, Winter, 1994.

- Thomas Lanquer 외, 「The Making of Modern Body : Sexuality and Society in 19th Century」 (Berkely, L.A.,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 H.C.G. Matthew, 「The Oxford History of Britian」 (London, 1989) 영국사 연구회 역, 「옥스퍼드 영국사」 (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4)
- A. Maurois, 최을립 역 「영국사」, (서울: 기린원, 1995)
- K.A. Psomiades, "Beauty's Body : Gender Ideology and British Aestheticism", Journal of Victorian Studies, Fall, 1992.
- M.E. Roach & K.E. Musa, 「New Perspectives on the History of Western Dress」 (N.Y. : Saul Schur Nutri-Guides, Inc, 1979)
- C.V. Scott, 「Gender and Development」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Inc, 1995)
- Elaine Showalter, 「The Female Malady : Women, Madness and English Culture, 1830-1980」 (N.Y.: Penguin Books, 1985)
- Barbara Sichtermann, 「Femininity : The Politics of Personal」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6)
- John Tosh, "What Should Historians do with Masculinity Reflactions on 19th Century Britain", History Workshop Journal, 1994.
- B.S. Turner, 「The Body and Society : Exploration in Social Theory」 (N.Y.: Basil Blackwell Publisher Ltd, 1984)
- H. Wölfflin, Translated by M.D. Hottinger 「Principles of Art History」, (N.Y.:Dover Publications Inc, 1929)
- Encyclopedia Americana Vol. 24, (1970) pp.631-632.
- 竹内梅雄, 「美學辭典」 (東京:弘文堂, 1974), 안영길 역, 「미학 예술학 사전」, (서울:미진사 1989) p.510.